

현장시선



김성배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인물이 흰하네요. 난 쪽삭 늙었지만 당신은 안 늙었어.” 다큐멘터리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귀에 꽃을 꽂아 주며 정겹게 건넌 말이다. 이 영화는 76년 동안 해로운 부부의 이야기다. 이 노부부의 풋풋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기억이 새롭다. 지금 제주사회의 세태는 어떠할까. 지난 3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 4년 이내의 신혼이혼은 줄어든데 비해 결혼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즉 황혼이혼은 꾸준히 늘고 있다. 더욱이, 황혼이혼이 전체이혼

100세 시대, 이혼과 연금사이

(1607건)의 27.1%를 차지하고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황혼이혼 이슈는 연금 분할과 불가피하게 연관돼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이혼하는 경우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다. 바로 분할연금이다. 이는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기여부분에 대해 노령연금을 나누어 갖는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이혼한 상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기초로 발생하는 급여이므로 파생적 수급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재혼으로 분할연금이 정지되지 않으며 또한 분할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분할연금무자의 노령연금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적 수급권의 특성이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배우자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받게 되는 연금의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일률적으로 50대 50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 등을 통해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가 있도록 바뀌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황혼이혼은 100세 시대의 최고 리스크다.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로 분할연금을 둘러싼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혼으로 부부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대적 빈곤에 시달릴 수 있고 심리적 스트레스나 자녀와의 갈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황혼이혼은 이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화성인 남자’와 ‘금성인 여자’의 백년해로가 정말 쉽지않은 상황이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소중함과 부부의 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다.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감독은 영화에 출연한 노부부를 보며 “사랑이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쌓이는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인생퍼즐은 마지막에 완성된다고 한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부부의 열정이 다 녹아버린 듯한 그 시점에 완성은 시작되는 것이다. 100세 시대에는 부부가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습관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노년부부의 삶일 것이다. 따라서, 황혼이혼으로 연금을 분할하여 홀로 생활하는 각자의 삶보다 부부가 함께 돈독한 정을 쌓으면서 온전한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향유하는 것이 100세 시대에 지혜로운 노년부부의 삶이라고 믿으며, 노년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더욱 많아지는 제주사회를 꿈꿔본다.

열린마당

소각 사전신고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필요



고기봉 성산119센터 남성용소방대 총무부장

쓰레기 소각 금지 및 농부산물 소각 사전신고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피움시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
불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에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고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제주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 과태료 19건, 기관통보 233건, 현장지도 486건 등 총 738건의 단속 실적

을 보였다.
제주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 4조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팩스, 구두(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해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단, 영농활동 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산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자는 폐기물 소각금지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심과 예방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나 하나 좁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사전신고제를 활용해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시 도로변 쓰레기통 다시 설치 될까

퇴임 공직자들 노고 치하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퇴임 공직자들이 뉘어진 길 위에서 더 살기 좋고 더 미래가 밝은 제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공언.
원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공직자 퇴임 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공직을 시작했던 70~80년대 제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발전을 이룩했다. 이러한 발전에는 퇴임하는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다”고 노고를 치하.
원 지사는 이어 “제주도는 퇴임하는 공직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늘 응원하겠다”고 다짐. 조상윤지

쓰레기통 재설치 의견 수렴

○...제주시가 도로변 쓰레기통 재설치 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을 수렴해 눈길.
제주시는 27일 제1별관 회의실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실태 평가단’ 회의를 열고 생활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해 도로변 쓰레기통 재설치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찬반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제주시 관계자는 “쓰레기통 재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다”며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언급. 고대모기자

“자사고 선정 권한 돌려달라”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달라고 촉구.
이석문 교육감 등 15개 시도 교육감은 27일 성명을 내고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교육감들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며 “지난 정부는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
협의회는 이어 “올바른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달라”고 촉구. 표성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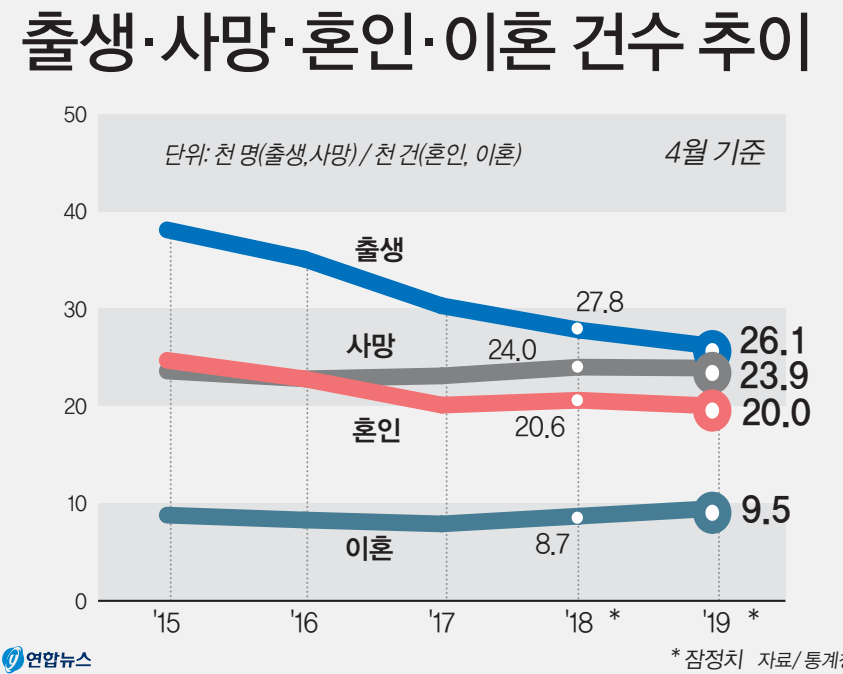
사설

주택시장 활성화, 업계 자구노력도 있어야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문제가 좀 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도내 아파트 분양가격이 떨어졌다고 하거나 주택 매매량이 늘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실상가상으로 준공 뒤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은 점점 더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주도는 TF를 구성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세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하는 임대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자체부담금을 확보해 130호를 사들였습니다. 올해는 미분양주택 80호를 포함해 180호를 매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입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오른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격 문제로 인해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제주도의 고문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올 4월말 기준 774호로 역

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록한 736호보다 38호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미분양 주택도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말 1200호를 돌파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5월 현재 1126호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제주지역 주택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는 주택 인·허가 건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주택건설 허가에 비해 무려 47.9%나 감소했습니다. 건설업계가 달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내 건설업은 2015~2016년만 하더라도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해 2017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영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줄도산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건설업의 부진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건설업 취업자 수가 5100명이나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도 있었습니다. 미분양 해소 등 건설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오를대로 오를 집값의 거품을 걷어내는 등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픽 뉴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김씨 성호(향년 9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 28일
아들 오순철, 며느리 김순실, 고영생, 딸 오순심, 사위 양길주, 고관수, 손녀 순희, 김용남, 양윤실, 장손 오정민, 손부 양윤실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8고정3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서희정
위 피고인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6. 27.
판사 최석문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다'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마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 732-5552

상속한정승인공고
성명: 양 서희숙(1962년 09월 18일 생)
등록기준지: 서귀포시 하효중앙로 48-1(하효동)
최후주소: 서귀포시 하효중앙로 48-1(하효동)
상기자는 2019년 3월 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19년 6월 28일 제주지방법원 2019-단33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고지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서귀포시 하효중앙로 48-1(하효동)
2019년 6월 28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 준 식

evworld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1544-8236